

광주 광산구 첨단 주민, 복구 편입안 반발



투데이 뉴스

자치구간 경계 조정 주민공청회 출발부터 난항 “생활권 달라...정치적 입김 작용 아니냐” 성토

“첨단 1·2동을 복구로 편입시키는 것은 정치적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복구로 편입되길 원하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봐라.” “(주최 측에서) 이미 2안(첨단 1·2동 복구편입, 복구 일부 동구 편입 안) 관철을 염두에 두고 구민 불만을 잠재우려고 경계조정안을 세 가지나 만들어온 거 아니냐.”

광주시 광산구 첨단 1·2동을 복구로 편입하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8일 광주시가 광산구 첨단

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 용역 주민설명회’는 첨단 1·2동주민 100여명이 참여해 복구편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조선대학교 강인호 교수의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안 설명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경계조정안 1~3안을 만들 때 인구·면적 등 ‘지역형평성’을 우선 적용했다는 강 교수의 설명에 대한 첨단 1·2동 주민 반응은 싸늘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주민들은 ‘정치적 게리맨더링’ 등 원색적인 표

현을 써가며 경계조정안을 비판했다. 동구 국회의원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경계조정안 아니냐는 내용이 그 골자였다.

강장원 광산구 의원은 “용역에서 복구 인구는 변동이 없고, 광산구 인구는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고 있는데, 광산구 인구가 더 늘어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결국 (경계조정안은) 현행 국회의원 수에 맞춰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뉘앙스가 든다”고 밝혔다.

이어 경계조정안의 ‘도시계획 생활권 반영’, ‘지역형평성 고려’ 설명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김민준 전 광주시의원은 “첨단1·2동은 영산강으로 분리되어 복구 생활권이 아니다. 그동안 소토도 거의 안 됐다”며 “3안 대안이라면 서구로 편입될 월곡1·2동도 전혀 서구 생활권이 아

니다”며 반발했다.

박하열 광산구 게이트볼협회장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 구의 주요 체육시설이 첨단에 자리잡고 있는데, (경계조정이 되면)순식간에 시설들이 복구로 넘어가고 협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자리에서는 ‘첨단구분구’ ‘가가호호 방식 주민 의결 수렴’ 등 다양한 주민 목소리가 나왔다.

강 교수는 “경계조정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100% 반영한 최종안을 10월말까지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조작화회는 광주시로부터 연구 용역을 의뢰받고 조정폭을 소·중·대로 나눠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자치구간 인구 편차를 현재 23.5%

에서 전국 광역시 평균인 18.6% 이내로 조정하고 동구의 인구 확충, 서·남구 인구 유지 등을 골자로 했다.

1안은 복구 문화동, 풍향동, 두암 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2안은 복구 문화동, 풍향동, 두암 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첨단1·2동을 복구로 편입하는 안이다. 3안은 대폭 조정으로 복구 가·다 선거구의 동구 편입과 광산구첨단 1·2동 복구 편입, 광산구의 나 선거구의 서구 편입, 서구 풍암지구의 남구 편입 등이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표면상 첨단 1·2동의 복구 편입을 찬성하는 주민 의견은 없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 최종안을 마련되더라도 대상지역 구의회와 광주시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윤영복 기자

김영록 지사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오늘부터 프랑스·미국서 투자 유치

김영록 전남지사가 투자 유치를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순방길에 오른다.

지난달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1일부터 7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와 미국 LA를 방문한다.

2일 파리에서 세계적 화학기업인 에어리퀴드(Air Liquide)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에어리퀴드는 1999년 여수 국가산업단에 공장을 세웠다. 김 지사는 전남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모델 구상을 위해 베르사유 근교 도시농장도 둘러볼 계획이다.

3일에는 프랑스 국립 농업연구소(INRA)를 시찰,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책을 논의한다.

4일에는 미국 LA에서 현지 호남 향우회와 오찬 간담회를 하고 LA 한인축제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 날에는 키 트레이딩(KHEE Trading), LA 한인 상공회의소 등과 수출협약을 한다. 미국 최대 한인 마트인 한남 체인에서 전북 판촉 행사도 할 계획이다. /정근산 기자

광주시 소통위해 현장 속으로

각화초교서 ‘제1회 현장경청의 날’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8일 복구 각화초교에서 최영태 광주시 권익위원장, 복구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현장경청의 날’을 가졌다.

이날 첫 번째로 찾은 각화초교에서는 학생들의 통학안전 문제와 해결책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학부모들은 “각화초교는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까지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도 학내 진입로가 정문 1개소만

있고, 정문 앞에는 가스충전소가 있어 등하교 학생들이 늘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 후문 설치, 도로개설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이 시장은 “내 아이가 이용하는 통학로라는 마음으로 본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논의내용을 토대로 검토를 거쳐 통학로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노란신호등, CCTV를 설치키로 했다. /강성수 기자



시티투어버스 체험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현장형 공연투어’ 프로그램인 ‘광주 100년 이야기’ 시티투어버스 체험에 나선 가운데 관광객들과 남구 양림동 여행자라운지 양림샬롱에서 공연 ‘1930년 이야기’를 관람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순항 개막 한달 14만6천여명 관람

전통 회화를 주제로 한 최초의 국제 미술 행사인 2018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순항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에 따르면 비엔날레 전시 개막 한 달째인 이날 현재 관람객 14만6,0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추석 연휴에만 5만7,000명이 다녀갔다. 수목비엔날레는 ‘오늘의 수목, 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라는 주제로 목포·진도 6개 전시관에서 국내외 작가 266명(국내 209명·국외 57명)의 작품 312점을 선보인다.

1관(목포문화예술회관), 2관(노적봉 예술공원미술관), 3관(목포 연안여객선 터미널 갤러리)은 목포에 마련됐다. 4관(남도 전통미술관), 5관(금방 미술관), 6관(옥산 미술관)은 남종화 본산인 진도 운림산방에 자리 잡았다.

체류형 창작 활동인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국제적 수목수다방’(國際的水墨數多芳), 전국 미술 전공대학생들이 꾸민 ‘수목-아트월’ 등은 다양한 작품 생산층을 흡수해 전시의 깊이를 더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 서부권에 노인건강타운 들어선다

빛고을·효령 이어 3번째...2022년 완공 목표

광주시가 서구와 광산구 등 이른바 서부권역에 특화형 노인건강타운을 건립한다.

지난달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

섭 시장의 선거공약인 서부권 노인건강타운 건립을 위해 용역업체 선정 추진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서부권역은 서구와 광산구를 의미

하며 이 노인타운이 건립되면 남구 빛고을과 복구 효령에 이어 세번째다.

광주시는 6개월간의 용역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빛고을·효령 노인타운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서부권역 노인복지시설 건립대상 지역의 여건과

구체적 건립대상지 분석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19일 ‘빛고을·효령 노인타운 운영 성과분석 및 서부권역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공고를 냈다.

광주시는 오는 14일 용역업체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면 이튿날인 15일 평가위원회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총사업비는 687억원(국비 30억원, 시비 657억원)을 투입, 오는 2022년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규모와 시설 내용 등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5~10년 뒤 노인세대의 특성과 추구하는 삶의 방향에 맞는 맞춤형 시설로 구상해 미래지향적 노인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수 기자

순천시 공원녹지사업소 공고 제2018-10호

신월어린이공원조성계획 수립 결정(안) 열람 공고

순천시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8. 10. 01
순천시

1. 건 명
신월어린이공원조성계획 수립 결정(안) 열람 공고
2. 주요내용
○ 공원위치 : 순천시 조례동 540-1번지 일원
○ 면 적 : 2,717.0㎡
3. 관계도서 : 계획생략(열람장소 비치)
4. 열람기간 : 2018. 10. 01 ~ 2018. 10. 14 (14일간)
5. 열람장소 : 순천시 공원녹지사업소
6.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공원녹지사업소 (☎061-749-6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1000@hanmail.net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광주 동구 운림동 746번지
2. 분묘가수 : 무연고 묘지 1개소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완료후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광주 북구 영락공원로170 영락공원
6. 안치기간 : 봉안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48-11, 401호 양승우 (010-9924-1530)
9.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 촬영)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10. 기타사항 : 추가 분묘개장시 본 공고에 갈음함.

2018. 10. 1
공고인 양승우

도와주는 아바에서 함께하는 아바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
전라남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전라남도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가 함께 합니다

급매합니다

-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38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우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능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8400만원

문의. 010-3605-5000